

할망바다 애기바다



故 事 와 불 (연재 제50회) 김동일

▶ 제주도를 흔히 삼다도(三多島)라 부른다.

알다시피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다. 흔히 그렇듯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기에 바람이 많다는 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고, 화산의 분출로 이루어진 땅이니 검은 용암이 지천인 것 또한 금방 이해가 된다.

그런데 여자가 많다 함은 어떤 연유일까?

여로부터 바다 가까이에선 어부가 많아서 태풍 등으로 인한 남자의 사망률이 높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, 이런 사정이 꼭 제주 뿐만은 아닐 터, 그렇다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일까? 1948년 4월 3일에 있었던 4.3항쟁을 전후하여, 당시 제주 인구의 약 1/10에 해당하는 3만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다수가 남자였으니 당연히 여자의 구성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.

▶ 삼다의 섬 제주의 여인 하면 우선 해녀를 떠올리고, 오랜 세월 그들은 타고난 근면성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왔다. 생업의 수단으로서, 아니 삶 자체로서 그들이 일하는 제주 바닷가에는 으레 「불턱」이 있는데, 불턱이란 「물질을 위해 돌을 쌓아 만든 바닷가 노천 탈의장」을 일컫는 이 지역 고유의 말이다. 물질을 끝낸 해녀들이 말 그대로 불을 피워놓고 차가운 바람을 피해 한기를 녹이며 힘든 작업을 마무리하던 장소가 곧 불턱인 것이다.

▶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불턱은 해녀들에게 있어 한 집단의 일상을 주관하던 곳이었다.

그야말로 「칠성판(七星板)을 등에 지고 저승길을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일」을 하는 그들에게 인명안전은 최우

선의 과제였기에, 이곳에서는 • 물속에서 욕심을 버릴 것 • 물질작업 중 동료들을 서로 돌볼 것 • 공동체의 결속을 지킬 것 등을 먼저 가르치고 배웠으며, 그 외에도 일상의 많은 대소사를 나누었다.

• 가난한 동료의 집에 초상이 났을 때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그 장례 돕기를 의논하며 • 늙은 해녀가 물질의 기량을 잃었을 땐 「할망바다」를 내어주는 결정도 한다.

할망바다란 안전하면서도 해산물이 많은 얕은 바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, 깊은 물에 잠수하여 물질하기 어렵게 된 나이 든 해녀에게 양보하는 배려의 산물이다. 어린 초보해녀들에게도 할망바다와 같은 의미의 「애기바다」를 내준다고 하니, 사람살이의 참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싶다.

▶ 한해 여름의 마무리로 작정하고 나선 제주 「올레길」에서 땀 흘리며 찾아 본 몇 몇 불턱들.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듯 불턱도 예외는 아니어서, 이제는 마을마다 보일러를 설치한 현대식 탈의장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지만, 불턱의 존재만으로도 제주 여인들이 견뎌온 간난의 긴 세월을 어느 정도는 추상할 수 있을 것 같다.

이곳 불턱에서 대를 이어 전해져 왔을 「살암시민 살아진다(살다 보면 살아지게 된다)」는 말은 「인생이란 사는 게 아니라 살아 내는 것」이라는 경구와 오버랩 되어 오래 가슴에 남는다.

「연재 50회-고사와 불 24년」을 맞으며, 어느 해 한여름 불벌 속에서 잠시 가슴 시러왔던 곳, 우도(牛島) 바닷가 불턱과 할망바다를 떠올리며 썼다.

〈김동일/소방기술사·소방시설협회 본부장〉